

# 조선시대 영·호남의 학문과 사상 교류

고 영 진\*

I. 머리말	Ⅲ. 17세기 중반 이후의 영·호남 교류
Ⅱ. 16-17세기 전반의 영·호남 교류	1. 서원을 통한 교류
1. 지방관 역임을 통한 교류	2. 예송을 통한 교류
2. 유배를 통한 교류	3. 서적·학과를 통한 교류
3. 교제·서신을 통한 교류	Ⅳ.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시대 영남과 호남의 학문·사상 교류는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 글은 영·호남의 학문과 사상 교류를 두 시기로 나누어 16-17세기 전반의 시기는 지방관 역임과 유배, 교제와 서신 등을 중심으로, 17세기 중반 이후의 시기는 서원과 예송, 서적과 학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16-17세기 전반 시기 지방관 역임을 통한 교류는 김종직과 노진, 김성일 등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유배를 통한 교류는 김굉필과 노수신, 교제·서신을 통한 교류는 이현보와 이황, 박영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당시 영남과 호남의 성리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론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김종직·김굉필·이황 등의 영남사림과 김인후·이항·기대승·유희춘 등 호남사림과의 활발한 학문·사상적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 광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kohyj@gwangju.ac.kr

영남과 호남의 학문·사상 교류는 16세기에는 학파와 당파를 초월해 폭넓게 이루어졌다. 또한 1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사회는 서로 다른 봉당끼리 혼인도 자유스럽게 하고 학문 교류도 활발히 하였는데 이는 성리학파와 예학을 비롯한 학문·사상의 수준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서인·노론으로의 권력 집중과 봉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영·호남의 교류도 점점 그 폭이 좁혀져갔다. 그리하여 주로 영남·남인과 남인계 호남사람(호남남인) 간에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서원과 예송, 서적·학파 등을 통한 교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서원을 매개로 한 교류는 경현서원과 미천서원, 자산서원 등의 경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예송에서도 남인계 호남사람과 영남남인은 예학적 입장을 같이 하며 학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또한 서적과 학파를 통한 교류는 『반계수록』을 둘러싼 유형원·배상유·이현일·최흥원 등의 교류와 영향, 기정진학파의 문인집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유형원은 학문적으로 배상유와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반계수록』은 이현일과 최흥원 등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17세기 중반 이후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하지 못한 호남사람이 다시 학파로 결집되는 것은 한말 기정진에 가서였는데 기정진학파는 16세기 호남사람의 인맥과 학맥이 다시 결집되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의 학자들도 대거 문인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영남과 호남은 학문·사상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교류·제휴하면서 중기에는 사람의 시대를 열고 성리학을 심화·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후기에는 서인·노론의 권력 집중화에 반대하고 한말에는 위정척사사상을 내세우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데 함께 하였던 것이다.

◆ 주제어

영·호남 교류, 학문 교류, 사상 교류, 지방관 역임, 유배, 교제·서신, 서원, 예송, 서적·학파, 호남사람, 영남사람

## I. 머리말

조선시대 영남과 호남은 학문·사상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교류·제휴하면서, 중기에는 사림의 시대를 열고 성리학을 심화·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후기에는 서인·노론의 권력 집중화에 반대하고 한말에는 위정척사사상을 내세우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데 함께 하였다.

고려시대 5도의 하나로 ‘全羅道’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018년(현종 9)이며<sup>1)</sup> ‘慶尙道’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314년(충숙왕 1)이다.<sup>2)</sup> 그렇지만 고려시대 5도는 행정 단위로서의 성격이 컸다.

‘영남’과 ‘호남’이라는 말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불린 것은 고려시대까지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였다.<sup>3)</sup> 이 시기는 재지 중소지주로서 성리학적 소양을 강하게 지닌 사림이 향촌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남과 호남이라는 별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행정 단위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up>4)</sup>

1) 전라도는 995년(성종 14) 전국을 10개도로 나눌 때全州·瀛州 등의 주·현을 江南道로, 羅州·光州 등의 주·현을 海陽道로 하였으며 1018년 이를 합쳐 전라도라 하였다.(김갑동, 「전라도의 탄생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 63, 2016 참조)

2) 경상도는 995년 전국을 10개도로 나누면서 尙州 관내를 嶺南道로, 慶州·金州 관내를 嶺東道로, 晋州 관내를 山南道로 하였으며 1106년(예종 1)에는 慶尙晋州道라고 불렀다. 1171년(명종 1)에 慶尙州道, 晋陝州道 2개도로 나누었다가 1186년(명종 16)에 慶尙州道로 하고 1204년(신종 7) 尙晋安東道로 하였으며 그 후에 다시 慶尙晋安道라 불렀다. 1258년(고종 46) 溟州道の 和州, 登州, 定州, 長州의 4개주가 몽고에 점령당하자 경상안진도의 平海, 德原, 盈德, 松生 등을 溟州道에 소속시켰다. 1290년(충렬왕 16) 다시 덕원, 영적, 송생을 東界에 이속시켰으며 1314년에 경상도라는 명칭으로 정해졌다.(김갑동, 앞의 글 참조)

3) 호남이라는 명칭은 고려 후기부터 영남이라는 명칭은 고려 중기부터 보이고 있다. (『고려사』 「세가」 권6, 정종 6년; 권9, 문종 33) (도의 별칭과 지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범선규,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학지리학회지』 제38권 5호, 2003 참조)

4) 고영진,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역사적 맥락」, 『사회연구』 창간호, 2000.

조선시대 영남과 호남의 정체성을 형성한 주체는 영남사림과 호남사림이었다. 영남사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되어 왔지만 1980년대까지 호남사림은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라 기호사림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지역적으로도 경기·충청지방의 주변부로서 이해되고 독자적인 기반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정치사상계가 경기·충청지방의 서인과 영남지방의 남인으로 재편되는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타당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이전 시기에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특히 16세기 호남사림들은 나름대로의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다양한 학파를 이루며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선조 초년에는 중앙 정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sup>5)</sup>

그 과정에서 호남사림은 영남사림과 학문적·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교류를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결국 선조대에 가면 영남과 호남은 인재의 府庫로서 조정에 등용된 자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융성하였다.<sup>6)</sup>

이 시기 영남과 호남의 성리학 수준은 규모나 이론 수준에서 당대 최고였는데 이는 영남과 호남사림과의 학문·사상적 교류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지역에서는 활발한 학술논쟁이 벌어졌는데 호남지역에서는 朴祥과 승려 解空上人의 無極說論爭(1515), 金麟厚와 鄭之雲의 「天命圖」 논의(1549), 이항과 김인후·奇大升의 太極論辨(1558-60), 盧守愼과 김인후·이항·기대승의 人心道心論爭(1561-63) 등이 있었으며 영남지역에서는 李彦迪과 孫叔敏·曹漢輔 사이에 無極太極論爭(1517-18), 李滉과 정지운의 「천명도」 논의(1553) 등이 있었다.<sup>7)</sup>

1559년부터 1566년 8년간 이항과 기대승 사이에 벌어진 四端七情論爭은 16세기 초부터 전개되어온 영·호남 학술논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5) 조원래, 「16세기 초 湖南士林의 형성과 士林精神」, 『금호문화』 89-2, 1989; 이해준, 「己卯士禍와 16세기 전반의 湖南學派」, 『傳統과 現實』 2, 1991.

6) 후대에 가면 선조대 조정에 등용된 자의 반수가 영남과 호남사림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효종실록』 권4, 1년 5월 辛未; 『현종실록』 권3, 1년 11월 壬戌; 『숙종실록』 권37, 28년 8월 庚寅)

7) 고영진, 「일제 이항과 호남유학」, 『호남의 큰 학자 일제 이항 연구』, 돈사서, 2012.

한 학술논쟁들은 조선 학자들의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그들이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이황의 다음 글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이황과 김인후 두 사람이 太極을 논하면서 다섯 여섯 번 왕복 변론한 글을 받아보니 죽히 사람들의 意思와 眼目を 개발하여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는 사람들이 기꺼이 講學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혹 한두 사람의 동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벼슬길에 분주함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늙고 병든 이 사람은 그들과 떨어져서 쓸쓸히 지내면서 항상 막히고 머물러 있는 듯한 근심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봄으로 인해 마침내 호남에 이러한 인물들의 議論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실로 이는 우리 동쪽의 魯나라로서는 드물게 보는 일로 깊이 歎慕하고 쓸리는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sup>8)</sup>

조선시대 영남과 호남의 학문·사상 교류는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호남의 학문·사상 교류를 두 시기로 나누어, 16-17세기 전반의 시기는 지방관 역임과 유배, 교제와 서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17세기 중반 이후 시기는 서원과 예송, 서적과 학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 II. 16-17세기 전반의 영·호남 교류

### 1. 지방관 역임을 통한 교류

16-17세기 전반 영·호남의 학문 및 사상 교류는 지방관 역임과 유배, 교제·서신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지방관 역임을 통한 교류는 金宗直

8)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答示論太極書」 (『高峯全集』)

과 盧禎, 金誠一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5세기 말 성종대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영남사람의 宗匠이었던 김종직(1431-1492)은 길재의 문인이었던 김숙자의 아들로 그의 집안은 父鄉인 선산과 母鄉인 밀양을 재지적 기반으로 한 영남의 대표적인 사족가문이었다. 그를 위시한 신진사류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훈척의 비리와 전횡을 비판하고 당시 사회의 모순을 성리학적 이념과 제도의 실천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였다.<sup>9)</sup>

또한 이들은 법률적 강제로서의 刑政보다 이념적 지배로서의 敎化를 우선 시하며, 성리학 수신서인 『소학』과 의례서인 『주자가례』를 중앙과 향촌에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양대 기반으로 삼았으며, 鄉飲酒禮와 鄉射禮 등을 시행하기 위해 향촌사회에서 유향소복립운동을 전개하였다.<sup>10)</sup>

김종직이 호남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바로 유향소복립운동을 전개하던 시기 중인 1487년(성종 18) 6월부터 1488년 5월까지 전라도 관찰사 겸 전주부윤을 역임하면서였다. 당시 호남지방은 淫祀가 성행했는데 김종직은 부임하여 각 고을을 순행하면서 독서를 권장하고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시행하였다.<sup>11)</sup> 전주에서는 1488년 3월 3일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행하고 시를 짓기도 하였다.<sup>12)</sup> 또한 광주 무등산의 모습과<sup>13)</sup> 나주의 역사·문화를 시에 담기도 하였다.<sup>14)</sup>

김종직의 『門人錄』에는 나주 출신 崔溥와 김제 출신 李繼孟 등이 올라 있다.<sup>15)</sup> 두 사람은 모두 과거를 계기로 김종직과 사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

9) 고영진, 『호남사람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10) 李泰鎭, 「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上·下), 『震檀學報』 34·35, 1972·1973.

11) 『佔畢齋集』 「年譜」, 成宗 18年

12) 『佔畢齋集』 詩集 권22, 「全州三月三日行鄉飲鄉射禮」

13) 『佔畢齋集』 詩集 권21, 「光州無等山」

14) 『佔畢齋集』 詩集 권22, 「錦城曲」

15) 김종직의 『門人錄』에 수록된 인물은 김맹성, 정여창, 김굉필, 조위, 남효온, 김일손, 권오복, 유호인, 박한주, 이원, 이주, 이승인, 원개, 이철균, 광승화, 강흔, 권경유, 이목, 강경서, 이수공, 정희량, 노조동, 강희맹, 임희재, 이계맹, 강림, 홍한, 이홀, 정승조, 강백진, 강중진, 김흔, 김용석, 홍유손, 이종준, 최부, 표연말, 안우, 허반,

이다.<sup>16)</sup> 최부는 1477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申從漢,<sup>17)</sup> 김굉필<sup>18)</sup> 등과 교유하였다. 이어 1482년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 전적, 홍문관 교리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동국통감』과 『동국여지승람』의 改撰 작업에 참여하였다. 1487년 제주도에 추쇄경차관으로 갔다가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여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중국에 표류하였다가 반년 만에 귀국하여 『漂海錄』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무오사화 때 스승인 김종직의 문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단천에 유배되었으며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처형되었다.

최부는 해남 정씨와 결혼한 것을 계기로 처향인 해남으로 옮겨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위인 柳桂隣<sup>19)</sup> 비롯하여 尹孝貞,<sup>20)</sup> 林遇利<sup>21)</sup> 등을 가르쳐 김종직의 학문이 호남지역에 전해지는 데 기여하였다.<sup>22)</sup> 이후 최부계열은<sup>23)</sup> 16세기 중반 호남의 학맥·인맥이 송순계열과 서경덕계열로 재편될 때 서경덕계열에 속하였으며 17세기에 가서는 남인계 호남사람(호남남인)으로 이어

유순정, 정세린, 우선언, 신영희, 손효조, 김기손, 강훈, 주운창, 방유녕, 양준 등 49명이다.(『佔畢齋集』 附錄 「門人錄」)

- 16) 김일손은 史草에서 최부와 이계맹이 製述로 인한 科次로 사제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저술하고 있다.(『연산군일기』 권30, 4년 7월 辛亥)
- 17) 신중호는 신숙주의 손자로 김종직이 서울에 있을 때 수학하였으나 김종직의 「문인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연산군일기』 권30, 4년 7월 辛亥)
- 18) 성균관에서 최부는 김굉필, 송석중, 박담손, 신희연 등과 ‘情志交孚契’라는 계를 만들어 교유하였다.(김기주, 『『漂海錄』의 저자 崔溥 연구』, 『全南史學』 19, 2002 참조)
- 19) 유계린은 柳成春·柳希春의 부친이다.
- 20) 윤희정은 기묘명현 尹衢의 부친이며 尹善道의 고조이다.
- 21) 임우리는 林億齡의 숙부이다.
- 22) 박준규, 「湖南詩壇의 人物과 그 특색」,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출판부, 1999 에서는 호남의 김종직 문인으로 나주의 崔溥와 柳軒·羅允明, 광주의 朴禎·崔亨漢·崔雲漢·表浴沔, 능주의 鄭汝諧, 진안의 宋寶山·金機, 고창의 曹秀文, 진주의 李繼孟·李瓊同·林士壽·柳仁洪, 창평의 曹浩, 부안의 曹偉·朴論問, 해남의 李龍, 함평의 李擢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3) 16세기 전반 호남사람의 인맥·학맥에는 최부계열 외에도 김굉필계열, 송흠계열, 박상계열, 이항계열, 김안국계열 등이 있었다. 16세기 중반 이들이 송순계열과 서경덕계열로 재편될 때 최부계열은 서경덕계열에, 나머지 김굉필·송흠·박상·이항·김안국계열은 송순계열에 속하였다.(고영진, 「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 『南冥學研究』 3, 1993. 24-29쪽 참조)

졌다.<sup>24)</sup> 한편 이계맹의 경우 김일손·남효은 등과 교류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에 김종직의 학문이 전해지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영남사람이면서 호남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노진(1518-1578)이었다. 함양 출신인 노진은 이항·유희춘·朴淳·기대승 등과 함께 ‘湖南五賢’으로<sup>26)</sup> 불리기도 하는데<sup>27)</sup> 1536년(중종 31) 남원의 대표적인 사족이며 기묘명현인 安處順의 딸과 결혼하여 호남과 인연을 맺었다.<sup>28)</sup>

1537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김인후·노수신·홍인우 등과 교류하였으며 1546년(명종 1) 문과에 합격한 뒤 승문원 부정자, 성균관 전적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552년 지례현감으로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에 뽑혔으며 1561년 노모의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하자 담양부사에 임명되어 2년 동안 재직하였다. 이듬해 龍泉寺에서 이항을 만났는데 원근의 선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1565년 진주목사로 있을 때 조식과 교류하였으며 이항과 서신을 주고 받았다. 1567년 충청도 관찰사를 지내고 전주부윤에 임명되어 3년 동안 재직하였다. 이어 홍문관 부제학을 역임하고 1571년 노모의 봉양을 위해 다시 곤양군수로 나갔다. 이듬해 경상도 관찰사 등을 지냈으며 이어 예조판서·이조판서·대사헌 등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노진은 처가가 호남의 대표적인 사족인데다가 5년 이상을 호남지역의 지

---

24) 17세기 남인계 호남사람으로는 윤선도 집안과 羅士枕 집안 등을 들 수 있는데 나사침의 부친인 羅暉은 최부의 사위이다.(고영진, 『호남사람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67-71쪽 참조)

25) 오경택, 「15~16세기 前半 全州圈 士族社會의 形成과 活動」, 『한국학논총』 36,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1.

26) 고종대 호남유생들은 노진과 이항·유희춘·박순·기대승 등을 ‘湖南五賢’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의 문묘종사를 추진하였는데, 노진은 정여창의 연원을 이은 嫡傳으로 이항과 도의로 사귀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추천되었다.(『고종실록』 권21, 21년 3월 庚寅; 이선아, 「一齋 李恒의 학문적 위상 확립과정과 南阜書院」, 『지방사와 지방문화』 17권 2호, 2014 참조)

27) 한편 김인후·기대승·이항·유희춘·박광전 등을 湖南五賢으로 지칭하기도 한다.(『竹川集』 권7, 附錄 「行狀」, 「墓碣銘」)

28) 『玉溪集』 권6, 「年譜」

방관을 역임한 것을 계기로 호남의 많은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송순의 俛仰亭詩壇에 참여해서는 「次俛仰亭韻」, 「敬步俛仰亭韻」, 「敬次宋相公純留韻」 등의 시를 남겼으며<sup>29)</sup> 『河西集』에는 노진의 집에서 김인후와 노수신·양응정·김희년 등이 모여 지낸 기록이 보인다.<sup>30)</sup> 또한 그는 기대승의 만사와<sup>31)</sup> 김인후의 제문·만사 등을 썼으며<sup>32)</sup> 장인인 안치순의 행장을 짓기도 하였다.<sup>33)</sup>

노진은 『대학』을 매우 존중하였으며 『논어』와 『근사록』, 『심경』 등을 중시하였다. 또한 당시 토지겸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均田制를 실행할 것을 주장하고<sup>34)</sup> 1575년 仁順王后喪 때는 『주자가례』를 따라 黻笠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35)</sup> 뚜렷하게 어느 학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조식과 그 문인들과 가까웠다.

「행장」에서 조식이 그의 高尚之趣에 감탄하고 이항 역시 그의 自得之實에 탄복하였으며 세상의 학자들이 그를 방문하여 사귀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sup>36)</sup> 노진과 호남사림 사이에는 많은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련 기록은 많지가 않아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인 1562년 이항을 만나 『대학』에 대해 논하면서 그 宗旨를 얻었다고 하는 것<sup>37)</sup> 노수신과 人心道心說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 등이 남아 있다.<sup>38)</sup>

노진과 호남사림과의 관계는 그가 죽은 뒤 호남사림들이 쓴 수많은 만장과 제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순·김천일·윤유기·변사정·이후백·양응정·정철·

29) 『俛仰集』 권7, 附錄 「次俛仰亭韻」; 『玉溪集』 권1, 「敬次宋相公純留韻」, 「敬步俛仰亭韻」; 『玉溪集』 續集 권1, 「敬步俛仰亭韻」

30) 『河西集』 권2, 「盧子膺禎弟贈寡梅孟明諸君大秀梁公變應鼎金慶老禧年同會秀變夜還餘同宿」

31) 『高峯集』 別集附錄 권1, 「挽章 盧禎玉溪」

32) 『河西集』 附錄 권2, 「祭文」, 「挽河西」

33) 『玉溪集』 권3, 「承訓郎守奉常寺判官安公行狀」

34) 『玉溪集』 권5, 「均田議」

35)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113-119쪽.

36) 『玉溪集』 권6, 「行狀」

37) 『玉溪集』 권6, 「墓誌銘」

38) 당시 노수신과 김인후·이항·기대승 사이에 인심도심논쟁이 벌어졌는데 노진도 관심이 있어 서신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玉溪集』 권4, 「與盧寡梅書」)

이항·백광훈·윤의중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호남의 유학자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또한 호남사람은 남원에 창주서원을 세워 그를 배향하였다.

이항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김성일(1538-1593)은 1583년(선조 16) 8월부터 1586년 10월까지 나주목사를 역임하였다.<sup>39)</sup> 그는 임지에 도착해서 항상 사모관대를 갖추고서 백성들을 대하였으며 춤거나 답다는 이유로 폐하지 않았다. 정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력이 강한 자를 억누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자신의 몸가짐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sup>40)</sup>

또한 民情이 막힐까 두려워하여 북 하나를 내걸도록 하고 “만약 원통한 일을 하소연하고 싶은 자는 와서 쳐라” 하였다. 이에 일이 막히는 법이 없어서 위아래가 서로 화합하였고 온 도의 訟事가 모두 모여들었으나 판결하는 것이 물 흐르는 듯하였으며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아전을 잘 단속하여 국왕으로부터 表裏 한 벌을 하사받기도 하였다.<sup>41)</sup>

나주는 본래 선비가 많다고 일컬어졌으나 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만한 곳이 적었다. 이에 김성일은 1584년 금성산 기슭에 터를 잡고 大谷書院을 창건하였는데<sup>42)</sup> 규모와 學습은 일체 白鹿洞書院의 예를 따랐다. 이어 사우를 세워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항 등 五賢을 배향하였다. 서원을 건립

39) 『錦城邑誌』 「羅州牧先生別案上」

40) 『鶴峯集』 附錄 권2, 「行狀」

41) 『鶴峯集』 附錄 권1, 「年譜」, 宣祖 16年

42) 『景賢書院誌』를 보면, 서원을 1584년 처음 설립할 때 강당과 동채·서재를 갖추어 ‘錦陽’으로 명명하였으며 사우는 미처 건립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1587년 김성일의 후임으로 任允臣이 부임해 와 사우를 건립하고 5현을 배향하여 서원의 모습을 갖추고 명칭도 금양에서 五賢書院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鶴峯集』과 『鶴峯逸稿』에 대곡서원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進退體를 얻어 諸生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기록과 이발·이길 형제, 김천일 등과 대곡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 좀 더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景賢書院誌』 권1, 「書院古跡」)(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2007 참조)

하는 데는 나덕준과 나덕운 등 나주 나씨 나사침 집안이<sup>43)</sup> 처음부터 깊이 관여하였다.

『鶴峯集』과 『鶴峯逸稿』에는 김성일이 대곡서원을 공사를 감독하면서 쓴 시 「大谷書堂董役偶得進退體示諸生 甲申 以下 錦城錄」, 「大谷書堂董役偶得進退體示諸生 甲申」, 「大谷書堂董役偶得進退體示諸生 四首 第一首元入 第四首續入」 등과<sup>44)</sup> 대곡서원 知遠樓에서 李潑·李洁 형제, 담양부사 김천일, 정자 광미수, 유사 오근증·이연양·유인·노연양 등과 모임을 가지면서 지은 시 등이<sup>45)</sup> 실려 있다.

「삼월 십구일에 李景涵 형제 담양부사 金士重, 正字 郭眉叟, 儒士 吳謹仲·李彦讓·柳忍·魯彦讓과 더불어 大谷書院에서 모여 知遠樓에서 술을 조금 마시다」

이 자리에 네 분 정말 빼어났는데  
나도 또한 영광되게 끼어 들었네  
흰 구름은 석상에서 피어 오르고  
푸른 시내 구각 돌아 흐르며 우네  
정겨웁게 맘 논하는 자리에다가  
정성스레 道 지키는 情이로구나  
絃歌 울림 이로부터 시작되어서  
천년토록 좋은 풍교 수립하리라

대곡서원은 1609년(광해군 1) ‘景賢’이라는 사액이 받아 경현서원이 되었으며 1693년(숙종 19) 김성일 자신이 추가로 배향되고 이후 기대승이 追配

43) 나사침 집안은 동인 → 북인이었다가 이후 남인으로 자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4) 『鶴峯集』 권1, 「大谷書堂董役偶得進退體示諸生 甲申 以下 錦城錄」; 續集 권1, 「大谷書堂董役偶得進退體示諸生 甲申」; 『鶴峯逸稿』 권1, 「大谷書堂董役偶得進退體示諸生 四首 第一首元入 第四首續入」

45) 『鶴峯逸稿』 권1, 「三月十九日與李景涵昆季金潭陽士重郭正字眉叟儒士吳謹仲李彦讓柳忍魯彦讓會于大谷書院小酌知遠樓」, 「丙戌暮春旣望前一日追次東巖踏青日見惠之詩兼遠大谷之會韻強語益拙用希覆說」

되었다.

또한 김성일은 나주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스승 이황의 「聖學十圖」와 「溪山雜詠」, 『朱子書節要』, 『退溪先生自省錄』 등을 간행하여 이황 학문의 호남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儀禮圖」와 『鄉校禮輯』 등의 예서도 간행하여 향촌 교화에 힘썼다.<sup>46)</sup>

## 2. 유배를 통한 교류

영남과 호남사림의 유배를 통한 학문·사상 교류는 김굉필과 노수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학문적으로 호남사림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김굉필(1454-1504)이었다. 김굉필은 정여창·김일손과 함께 김종직의 3대 제자로 그의 집안은 현풍과 합천·성주 등지에 재지적 기반을 가진 사족이었다.

그는 김종직 문하에 들어가 『소학』을 배웠으며 이를 계기로 『소학』에 심취하여 스스로 ‘小學童子’라 칭하고 小學 네트워크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평생을 『소학』의 실천과 보급에 힘썼다.<sup>47)</sup> 1480년(성종 11)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척불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1494년 천거로 남부참봉에 임명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평안도 회천에 유배되었으며 이때 조광조가 찾아와 성리학을 배우기도 하였다. 1500년 유배지가 순천으로 옮겨졌으며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賜死 당하였다.<sup>48)</sup>

김굉필이<sup>49)</sup> 호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순천에 귀양 와서 죽기까지 4년

46) 『鶴峯集』 附錄 권1, 「年譜」, 宣祖 18-19年

47) 윤인숙, 『조선 전기의 사람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48) 『景賢錄』 上, 「行狀」; 『景賢續錄』 上, 「行狀」

49) 김굉필의 「師友門人錄」에 수록된 인물은 김종직, 김맹성, 정여창, 남효운, 이심원, 신영희, 이승언, 원개, 이철균, 곽승화, 주운창, 신정지, 유호인, 조위, 현손, 홍귀손, 성모, 이장길, 이적, 최충성, 박한삼, 윤신, 이분, 노조동, 허반, 민귀손, 강훈, 조광조, 유우, 이장곤, 정응상, 김정국, 성세창, 이계맹, 김일손, 최부, 김안국, 우성운 이정은, 이충 등 40명이다.(『景賢續錄』 下, 「師友門人錄」; 『景賢續錄補遺』 下, 「師友門人錄」)

동안 지내면서였다. 이때 崔山斗와 유계린, 최충성·이적·윤신·유맹권·장자강 등이 그에게서 학문을 배웠다.<sup>50)</sup> 기묘명현인 최산두는 광양 출신으로 김굉필에게 수학하고<sup>51)</sup> 서울로 올라가 조광조·김정·김안국 등과 교류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洛中君子會’라 일컬었다.<sup>52)</sup>

1504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학명을 떨쳤으며 1513년 문과에 합격한 뒤 계속 관직을 역임하다가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동복으로 유배되었다. 이때 김인후와 유희춘 등이 찾아와 수학하였다. 귀양간지 14년만인 1533년 풀려났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柳成春·尹衢와 함께 ‘湖南三傑’로,<sup>53)</sup> 또한 경연관으로 활약하여 양팽손·기준·박세희와 함께 ‘四學士’로 일컬어졌다.<sup>54)</sup>

유계린은 김굉필뿐만 아니라 장인인 최부에게도 학문을 배웠으며 이를 자신의 아들인 유성춘과 유희춘에게 전해주었다. 경전에 박식하였고 30세 이후에는 두문불출하고 향촌의 자제를 가르치는 데에 힘썼다.<sup>55)</sup> 『眉巖集』에 수록되어 있는 「庭訓」의 「十訓」은 바로 유희춘이 부친의 언행과 가르침을 정리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sup>56)</sup> 결국 김굉필의 학문은 최산두와 유계린을

50) 박준규, 「湖南詩壇의 人物과 그 특색」,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출판부, 1999. 여기서 호남의 김굉필 문인으로 광양의 崔山斗, 순천의 張自綱·柳孟權, 광주의 李勤·尹信, 영암의 崔忠成, 임실의 李洙, 익산의 李若水, 해남의 柳桂隣, 남원의 吳梁孫·李延慶·具斗南, 고흥의 宋順孫, 남평의 徐滌, 창평의 朴以寬, 능주의 李嶠·具斗南, 전주의 李昌壽 등을 들고 있다. 역시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1) 『新齋集』의 「家狀」과 「年譜」 등 관련 기록에는 최산두가 김굉필을 私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원래는 최산두가 순천에 귀양 와있던 김굉필에게 직접 가서 수학한 것으로 보았다.(趙源來, 「土禍期 호남사람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東洋學』 2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참조)

52) 낙중군자회의 구성원은 최산두와 조광조, 김구, 한충, 김정, 김안국, 김식, 김정국, 박세희 등이다.(『新齋集』 권6, 遺事3 「洛中君子會」)

53) 『新齋集』 권3, 「家狀」

54) 『學圃集』 권3, 「家狀」 “當時經筵講官 世稱四學士 而先生及服齋奇公遵道源齋朴公世憲新齋崔公山斗是已 皆以一時經行之士 迭日侍講”

55) 『眉巖集』 권3, 「城隱先生碣陰」

56) 유희춘의 「庭訓」은 「十訓」과 「內篇」, 「外篇」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편」은 다시 上(入朝須知)과 下(治縣須知)로 나뉘어져 있다. 「십훈」은 부친이 남긴

거처 김인후·유성춘·유희춘에게 이어지고<sup>57)</sup> 그것이 다시 문인들에게 전해져 호남사람의 학맥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호남에 귀양 와 19년 동안 살면서 호남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풍성하게 한 인물이 노수신(1515-1590)이었다. 이항의 사촌누이의 아들이기도 했던 그는 상주 출신으로 1531년(중종 26) 이연경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1541년 이연적이 入京하자 찾아가 『心經附註』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였다. 1543년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이듬해 賜暇讀書를 할 때 이황과 교류하였다.<sup>58)</sup>

1547년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순천에 유배되었으며 이 해 양재역벽서사건이 일어나 다시 진도로 귀양지가 옮겨졌다. 그곳에서 1551년 「夙興夜寐箴」을 주해하고 1556년 김인후와 詩를 주고받았다.<sup>59)</sup> 1558년 이황이 「夙興夜寐箴註解」에 대해 논한 편지에 답장을 보냈으며 이듬해 「人心道心辨」을 저술하였다. 1560년 이황이 다시 답장을 보내왔고 이듬해에는 이황이 「인심도심변」에 대해 논한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 1562년 「執中說」을 쓰고 김계와 노진이 인심도심설에 논한 편지와 나사침이 喪禮에 대해 논한 편지에 대해 답장을 보냈다. 1565년 역시 인심도심설을 논한 나사울과 김천일의 편지에

---

「家居篤行十條」를 정리한 것이며 「내편」은 집안에서 지켜야할 내용, 「외편」 상은 조정에서 벼슬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 「외편」 하는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 알아야할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57) 김굉필은 『예기』의 「內則篇」을 본 따 「家範」을 짓고 儀節을 마련하여 자손에게 보이되 훈계하는 방법은 인륜을 더욱 중하게 여겼다고 한다. 유계린의 「거가독행집조」는 이 「가법」의 居家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계린은 김굉필의 실천적 도학사상을 계승하여 아들인 유희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희춘은 다른 한편으로는 김안국으로부터 향촌 교화 등 집진적인 개혁의 전통도 이어받고 있다.(『大東野乘』 권20, 「海東雜錄」 2, 本朝 金宏弼; 『眉巖集』 권4, 「庭訓」; 鄭京美, 「16세기 湖南士林의 家訓-柳希春·奇大升 家の 사례-」,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12 참조)

58) 『蘇齋集』 「年譜」

59) 『河西集』 권2, 「蔡太述承先盧寡梅守愼李敏德諸君賦一詩佰寶家作」; 권5, 「懷寡梅」, 「次蘇齋韻」, 「次蘇齋贈人韻」, 「次蘇齋韻」; 권8, 「寡梅求詩」, 「贈孟明寡梅吉元三君子」, 「見寡梅書」; 권9, 「贈孟明寡梅吉元三君子」, 「孟明示以寡梅別章余亦爲贈」, 「次蘇齋韻」; 권10, 「次韻寄蘇齋」

답장하였다. 이 해 괴산으로 이배되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유배에서 풀려나 정계에 복귀하여 대사헌·부제학·이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1573년 우의정, 이후 영의정까지 오르면서 사림 정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589년 己丑獄事가 일어나자 정여립과 김우옹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으며 그 해 죽었다. 그는 정계에 복귀한 뒤에는 대체로 동인 중에서도 서경덕·조식학과의 인물들과 교류가 많았다.

그의 학문은 休靜과 善修 등 승려와도 교분이 있었고 양명학과 나흠순의 영향을 받아 주자성리학과는 차이가 있었다. 「숙흥아매잡」을 주해하면서 불교의 용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황과 김인후로부터 선학에 물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sup>60)</sup> 또한 인심도심설을 논하면서 나흠순의 「困知記」에 나오는 人心道心體用說을 그대로 받아들여 도심을 體이며 性으로 인심을 用이며 情으로 봄으로써, 도심과 인심을 모두 情으로 보아 用이라 생각하는 주자의 견해와 달라 이황과<sup>61)</sup> 이황<sup>62)</sup>, 김인후<sup>63)</sup>, 기대승<sup>64)</sup>, 김천일<sup>65)</sup> 등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sup>66)</sup>

호남사람은 명종대에 오면 사상적으로 크게 서경덕계열과 송순계열로 나뉘지는데 서경덕계열에는 서경덕 문인이었던 박순·이중호와, 윤행·유희춘·윤의중·이발·정개청 등이 있었으며 당색으로는 주로 동인에 속하였고, 송순계열에는 송순·김인후·기대승·양응정·오겸·정철·고경명·김천일 등이 있었으며 당색으로는 주로 서인에 속하였다.

60) 『河西集』 권11, 「與盧寡晦論夙興夜寐箴解別紙」

61) 『退溪集』 권10, 「與盧伊齋寡悔守愼 甲寅」, 「答盧伊齋 庚申」

62) 『一齋集』 권1, 「與盧寡悔守愼書」

63) 『河西集』 附錄 권3, 「年譜」

64) 『高峯集』 권2, 「論困知記」

65) 『健齋集』 권3, 「上盧蘇齋守愼書 乙丑」

66) 趙誠乙, 「蘇齋 盧守愼의 學問과 政治活動」, 『南冥學研究』 3, 1993; 李炯性, 「16세기 호남사람의 학문 교류 및 논변 고찰 -金麟厚·李恒·盧守愼과 교류한 奇大升의 학문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48, 2009.

송순계열 인물들의 사상이 대체로 주자성리학에 가까웠다면 서경덕계열 인물들의 사상은 주자성리학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으며 오히려 복송의 소옹·장재와 나흠순의 학문, 양명학 등을 계승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 노수신은 바로 호남에서 서경덕계열의 사상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sup>67)</sup>

### 3. 교제·서신을 통한 교류

학문과 사상 교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는 교제·서신 등을 통한 것이다. 교제와 서신 등을 통해 호남사림과 교류를 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李賢輔와 이항, 朴英 등을 들 수 있다.

예안의 대표적인 사족가문 출신인 이현보(1467-1555)는 호남사림과 문학을 중심으로 교류한 인물이다. 1498년(연산군 4) 문과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504년 서연관의 잘못을 논하였다가 안동으로 유배되었다. 중종반정 뒤에 다시 복직되었고 1508년 영천군수를 시작으로 밀양도호부사·충주목사·안동부사 등 8개 고을의 수령을 지냈으며 1536년에는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어 형조참판·호조참판 등을 지내고 1542년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귀향하였다.<sup>68)</sup>

그는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고을마다 향교에서 釋奠을 행하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장려하였으며 군민들과 함께 향음주례·향사례를 행하고 養老宴을 베푸는 등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향촌사회에 보급하고 문풍을 진작시키는 데 힘썼다.

또한 한편으로는 고향 주위 경치 좋은 곳에 愛日堂을 비롯한 여러 정자를 짓고 江湖歌道로서 처사적 풍류를 즐기며 「漁父歌」, 「龔巖歌」, 「效嘯歌」, 「生日歌」 등의 시조를 지어 영남시단의 문을 열었으며 박상과 소세양 등 호남사림과도 교류하였다. 『訥齋集』에는 「次李棐仲父養老宴詩韻」, 「次星州入莒縣

67)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해안, 2007.

68) 『龔巖集』續集「年譜」권1

韻錄似裴仲」, 「次李執義裴仲甫愛日堂韻與詩上同日賦」 등의 시가 실려 있으며<sup>69)</sup> 소세양이 이현보가 쓴 「花山養老宴詩」와 「龔巖愛日堂」에 次韻한 시도 『농암집』에 실려 있다.<sup>70)</sup>

「李裴仲의 養老宴詩에 次韻하다」

영호루 밖은 물이 하늘 같은데  
거문고와 학을 즐기는 청렴한 기풍으로 6년을 지냈네  
관복과 홀 차림한 큰 키의 인물 슬하에 두고  
백 세의 두 분 노인 슬그릇 가에 나왔네  
안동 초야에 은혜의 물결 두루 미쳐  
노인네들 가무에 기쁜 기분 다 가졌네  
남쪽에선 지금까지 훌륭한 일로 전하거니와 벌일 것인가  
가을이 오면 누가 다시 화려한 잔치를

이 시는 이현보가 안동에서 양친을 맞아 양로연을 벌이고 조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상에게 들려 시를 보여주고 和作하기를 위해 박상이 次韻한 것으로 이 시기 영남과 호남사림의 문학적 교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현보의 「어부가」와 「漁父短歌」는 뒷 시기 윤선도의 「漁父四時詩詞」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sup>71)</sup>

호남 성리학의 형성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 李滉(1501-1570)이었다. 예안에 재지적 기반을 둔 영남의 대표적인 사족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호남사림과 학문적 교류와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확립해 나갔으며 이는 호남사림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그는 송순의 면앙정시단에 참여하여 「附退溪次韻」, 「次俛仰亭韻」 등의 시를 남겼

69) 『訥齋集』 권4, 「次李裴仲父養老宴詩韻」; 권5, 「次星州入莒縣韻錄似裴仲」; 續集 권1, 「次李執義裴仲甫愛日堂韻與詩上同日賦」

70) 『龔巖集』 권5, 附錄2 「花山養老宴詩 次韻」, 「龔巖愛日堂詩 次韻」

71) 박준규, 『유배지에서 부르는 노래』, 중앙M&B, 1997, 307-310쪽.

으며<sup>72)</sup> 김인후와도 시를 주고받는<sup>73)</sup> 등 문학적 교류도 활발히 하였다.

이황은 1527년(중종 22) 진사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하였으며 1533년 생원시에 합격해 다시 성균관에 들어가 김인후와 교유하였다.<sup>74)</sup> 당시는 기묘사화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士氣가 떨어지고 도학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했는데 두 사람이 한번 보고 뜻이 맞아 끊임없이 토론하고 닦아 소득이 있었다고 한다.<sup>75)</sup>

이황이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것은 1543년 『朱子大全』을 입수하여 공부하면서부터였고 자신의 이론을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계상·도산서당에 은거하면서 저술 활동과 제자 교육에 힘쓴 50대부터였다. 1553년 정지운의 「天命圖說」을 개정하고 後序를 붙였으며 이듬해 노수신의 「숙흥야매잠주해」에 대해 논술하였다. 1557년 『易學啓蒙傳疑』를 완성하고 이듬해에는 『주자서절요』와 『자성록』을 거의 완성하였다.

그리고 1559년부터 1566년까지 8년간 기대승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논쟁인 四端七情論爭을 벌였다. 여기서 이황은, 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그것에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그것에 타는 것이다[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라고 하여 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사단과 칠정을 각각 리와 기에 分屬시키고 사단은 純善無惡한 것으로, 칠정은 有善有惡한 것으로 본 것이다. 나아가 그는 리가 발한다고 하여 리의 능동성·자발성을 강조하였다.<sup>76)</sup>

이에 반해 기대승은,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마찬가지로 리와 기도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

72) 『俛仰集』 권2, 「附退溪次韻」; 권7, 附錄 「次俛仰亭韻」

73) 『河西集』 권2, 「敬呈豐基先生 退溪任豐基時」; 권3, 「敬次陶翁李先生泚韻示虎兒」; 권4, 「次退溪翁郡齋移竹之韻」; 권5, 「見退溪詩因和韻」; 권8, 「次退溪韻」; 권10, 「次退溪韻」; 附錄 권2, 「送金厚之修撰乞暇歸觀仍請外補養親恩許之行」; 附錄 권2, 「與河西門人卞成溫」

74) 『退溪集』 「年譜」 권1

75) 『河西集』 附錄 권3, 「年譜」

76) 『退溪集』 권16, 「答奇明彥 論四端七情第一書」, 「答奇明彥 論四端七情第二書」

므로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天理의 발현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기의 작용에 달려 있다고 하여 리의 자발성을 부정하였다.<sup>77)</sup> 이 논쟁은 뚜렷한 결말을 보지 못하고 끝났지만 조선 학자들의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그들이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어 송순도 1570년 이황과의 편지를 통해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비판하고 氣發理乘說을 주장하였다.<sup>78)</sup> 말하자면 이이가 1572년 성혼과 이기심성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학설을 체계화시키기 이전에 호남사림의 송순계열에서 이미 이이의 氣發理乘一途說과 비슷한 사상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sup>79)</sup>

그밖에 유희춘도 이황과 학문에 대해 토론하고 의심난 곳이 있으면 서로 물어봤을 뿐만 아니라 『語錄解』를 같이 편찬하고 『續夢求分註』를 보내 교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80)</sup> 또한 이황과 그 문인이었던 이담의 만사를 지었다<sup>81)</sup> 박광전은 이황을 찾아가 그의 문인이 되었으며 스승으로부터 받은 『朱子書節要』를 연구하면서 의문점이 나면 질문하기도 하였다.<sup>82)</sup> 임억령은 이황과 만나 시를 주고받으며 시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sup>83)</sup>

호남사림에 대한 이황의 학문적인 영향은 『陶山及門諸賢錄』에 담양의 유희춘, 나주의 박순, 보성의 박광전, 광주의 기대승, 장흥의 문위세, 해남의 윤

77)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高峯上退溪四端七情說」; 『高峯全集』 「高峯答退溪四端七情書」

78) 『俛仰集』 續集 권2, 「與李景浩書」

79) 劉明鍾, 「俛仰亭 宋純의 性理思想」, 『朝鮮後期 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

80) 鄭在薰,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南冥學研究』 3, 1993; 고영진, 「양반관료 유희춘의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이태진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태학사, 2009.

81) 『眉巖集』 권2, 「哭退溪先生」, 「挽李仲久湛」

82) 『竹川集』 권3, 「上退溪先生問目 朱子書節要疑義」, 「上退溪先生」

83) 『退溪集』 別集 권1, 「喜林大樹見訪論詩」; 『退溪集』 권2, 「次韻答林大樹四首 癸丑」; 『石川詩集』 권3, 「讀花潭詩文贈清涼山人 退溪」

강중·윤흥중·윤단중, 창평의 양자징, 순천의 김윤명, 화순의 조대중, 무장의 변성온·변성진 등 호남사람 13명이 문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sup>84)</sup> 이들은 대부분 윤선도집안 또는 김인후·유희춘 등과 연관이 있으며<sup>85)</sup> 이황의 문인이 된 이후 이황의 학풍을 유지하다 16세기 말에 가면 본인이나 그 제자들이 송순계열과 서경덕계열로 분화되어 갔다.<sup>86)</sup>

호남 성리학의 확산과정에서 영·호남의 학문·사상적 교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박영(1471-1540)과 이황이다. 두 사람은 태인에 살던 이황이 20대 후반 무렵 선산에 있던 박영을 찾아가 수학함으로써 사제관계를 맺게 된다.

박영의 집안은 전형적인 무반 가문으로 그 역시 무과에 합격하였으나 연산군이 즉위하자 낙향하여 학문에 힘쓰다 1500년 김굉필의 문인인 정봉을 만나 『대학』 등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이후 황간현감에 임명된 그는 기묘사림의 추천으로 고속 승진을 해 1519년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결국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김해부사로 좌천되었다가 1521년 모반혐의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 끝에 무고로 풀려나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다.<sup>87)</sup>

84) 이들 가운데 유희춘·기대승·박순은 이황의 문인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동한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교류를 하는 관계이거나 아예 자신의 문집에 관련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종석은 이황의 문인들을, 이황과 얼마나 긴밀한 학문적 관계를 유지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세 부류로 나누고 受業, 受學, 師事 등 확실한 학문적 전수관계라고 할 수 있는 A유형에 호남의 경우 박광전·문위세·윤강중·윤흥중·윤단중·양자징 등 6명을 선정하였다.(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子的 범위, 『韓國의 哲學』 26, 1998 참조)

85) 윤선도의 증조인 윤구는 외조카인 문위세를 이황에게 소개하여 수학하게 하였고, 동생 尹復은 안동부사 시절 윤강중·윤흥중·윤단중 세 아들을 이황 문하에 보냈으며 같은 시기 문위세와 그의 매부인 박광전도 함께 수학하였다. 또한 문위세와 조대중은 유희춘의 문인이며 변성온·변성진 형제와 양자징은 김인후의 문인이다. (고영진,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退溪學과 韓國文化』 32, 2003 참조)

86) 대체로 문위세·윤강중·윤흥중·윤단중·조대중 등이 서경덕계열에 속하고 변성온·변성진·양자징 등이 송순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87) 박영의 「門人錄」에 수록된 인물은 이황, 성운, 김취성, 신취성, 박소, 박집, 노수함, 임건, 최응룡, 길면지, 최해, 최심 등 14명이다.(『松堂集』 권3, 附錄 「門人錄」)

박영의 문인은 절의적 성격을 가진 학자와 관료들이 많았는데<sup>88)</sup> 이항(1499-1576)도 그 가운데 한명이었다. 이항의 집안은 성주에 뿌리를 두었으며 증조부 때 서울로 올라갔다가 이항이 태어난 뒤 태인에 정착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학문에 힘쓰지 않고 무예에 관심이 많아 遊俠으로 생활하였으나 백부의 꾸지람을 듣고 학문 공부에 전념하게 되며 이때 김식과 박영에게 가 학문을 배웠다.

젊었을 때 무예에 관심이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 학문의 길에 정진한 과정이 비슷한 두 사람은 사상에서도 유사한 점이 적지 않았다. 평생 동안 『대학』을 중시한 박영은 「白鹿洞規解」와 「大學圖」, 「大學經一章演義」 등을 저술하여 自得과 體認을 강조하고 敬을 중시하였는데<sup>89)</sup> 이는 이항이 추구했던 학문 방법·내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항 역시 『대학』의 거경공리와 격물치지, 성의정심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그것을 몸소 실천하였다. 또한 그는 노수신·김인후·기대승 등 동료·후배 학자들과 성리학 이론에 대해 학문적 논쟁을 벌이면서<sup>90)</sup> 주자의 학설과는 다른 理氣一物說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91)</sup>

그는 학문을 시작한 이후 거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학문 연구와 수련에 정진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를 키워냈다. 이 가운데 김천일·김제민·변사정·기효간 등 많이 인물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창의하거나 참가하여 활약하기도 하였다.<sup>92)</sup> 이항계열은 뒤에 송순계열로 연결되었으며 호남

88) 박영의 문인 가운데 김취성, 박운, 성운, 이항 등이 절의적 학자에, 송희규, 박광우, 김진중, 김취문, 강유선, 안명세 등이 절의적 관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묘사화 이후 사림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훈척세력에 대항하면서 침체되었던 도학의 맥을 다음 시기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金盛祐, 「15세기 중·후반~16세기道學運動의 전개와 松堂學派의 활동」, 『역사학보』 202, 2009 참조)

89)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中, 심산, 2016, 19-23쪽.

90) 『一齋集』 「贈奇正字大升書」, 「答奇正字書」, 「答湛齋書」, 「理氣說」

91) 박영의 학문은 뒤에 이황과 이이로부터 禪의 요소가 있다고 비판받았으며 그의 제자 성운은 노장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받았다. 이는 이항의 학문이 주자의 학설과 다른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92) 고영진, 「일제 이항과 호남유학」, 『호남의 큰 학자 일제 이항 연구』, 돈사서, 2012.

성리학뿐만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sup>93)</sup>

이처럼 16세기 영남과 호남의 성리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론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황·박영을 비롯한 영남사림과 김인후·이항·기대승·유희춘 등 호남사림과의 학문·사상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sup>94)</sup>

### III. 17세기 중반 이후의 영·호남 교류

#### 1. 서원을 통한 교류

영남과 호남의 학문·사상 교류는 16세기를 중심으로 학파와 당파를 초월해 폭넓게 이루어졌다. 또한 1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사회는 서로 다른 붕당끼리 혼인도 자유스럽게 하고 학문 교류도 활발히 하였는데 이는 성리학과 예학을 비롯한 학문·사상의 수준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서인·노론으로의 권력 집중과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영·호남의 교류도 점점 그 폭이 좁혀져갔다. 그리하여 주로 영남 남인과 남인계 호남사림(호남남인) 간에 교류가 이루어졌는데<sup>95)</sup> 서원과 예

---

93) 송인수는 이항을 칭찬하여 張載에 비유하였고 뒤에 이식은 호남의 북쪽에는 이항이, 호남의 남쪽에는 기대승이 있다며 두 사람을 호남 성리학의 두 기둥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황은 이항을 호남에서 理氣를 제창했다고 하였으며 『연려실기술』에서는 이항을 호남 道學의 祖宗으로 평가하였다.(『一齋集』續錄「遺事」; 『一齋先生遺集』권4, 附錄「書院重修記」; 『一齋先生續集』「雜著」)

94) 한편 조식은 지리산을 여러 번 유람하였는데 그때 호남사람들이 일행에 합류해 교류하기도 하였다. 조식의 누이가 호남사림인 이공량과 결혼해 호남지방으로 시집가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박성무가 조식에게 학문을 배운 뒤 김천일 문하에 출입하는 등 경상우도사람과 호남사람과의 교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신병주, 『남명학과 화담학과 연구』, 일지사, 2000, 155쪽 참조)

95) 남인계 호남사림(호남남인)은 이 시기 영남남인뿐만 아니라 근기남인파도 활발한

송, 서적·학과 등을 통한 교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서원을 매개로 한 교류는 경현서원과 眉泉書院, 紫山書院 등의 경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경현서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성일과 나주 나씨 주도로 설립되었다. 초대 원장이 정개칭이었으나 기축옥사 이후 김천일이 원장을 맡는 등 주도권이 서인으로 넘어갔다가 광해군대에는 나덕명 등 복인이 원장을 맡다가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인 안방준과 남인인 나위소가<sup>96)</sup> 원장을 맡는 등 주도권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심하여 乙未獄事라는 향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sup>97)</sup>

올미옥사는 1655년(효종 6) 나주향교의 釋奠祭 때 獻官에 대한 자격 시비 문제로 일어났는데 결국 중앙에까지 올라가 국왕의 개입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겉으로만 보면 향교의 헌관 문제가 발단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현서원의 원장 임명 등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서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발단이 된 서원향전이라고 할 수 있다.<sup>98)</sup> 이 사건 이후 각각의 세력은 별도의 서원을 건립하는데 서인계 호남사림은 1659년 月井書院을, 남인계 호남사림은 1690년(숙종 16) 미천서원을 건립하였다. 허목을 배향한 미천서원은 1778년 채제공이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발전하였는데 이 때 대대적으로 강당과 사우의 중수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서원의 임원으로 호남지역을 벗어나 영남사림들도 참여하였으니 영남사림으로 임원이 된 이는 1778년 嶺南都有司로 李象靖, 左道有司 李顯靖, 右道有司 金夢華 등이었다.<sup>99)</sup> 이들은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 당시 영남으로부터 전 200緡(兩)을 서원으로 보내왔으며 서원에서는 이 돈으로 전답을 매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남사림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지원

---

교류를 하였다.

96) 나위소는 나사침의 손자인 동시에 나덕준의 아들이다. 나덕명은 나위소의 백부이다.

97) 金東洙, 「16~17世紀 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 -특히 鄭介淸의 門人集團과 紫山書院의 置廢事件을 중심으로 하여-」, 『歷史學研究』 VII, 전남대 사학과, 1977.

98) 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2007.

99) 『眉泉書院實記』 권7, 「先生案」

을 한 경우도 있었다.<sup>100)</sup>

자산서원은 기축옥사 때 죽은 정개청을 배향한 서원으로 1616년(광해군 8) 설립되었다. 이 서원의 건립 역시 정개청의 문인인 나주 나씨 집안의 나덕윤 등이 주도하였다. 그러다 1657년(효종 8) 송준길 등의 주장으로 갑자기 훼철되었다.<sup>101)</sup> 그러자 이듬해 윤선도가 「國是疏」를 올려 자산서원의 훼철이 國是, 즉 국가의 원기를 해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그는 이 상소에서 정개청을 옹호하면서 그의 학문이 이황에 버금간다고 주장하고 서원의 훼철을 주도한 송준길을 비판하는 등 남인계 호남사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sup>102)</sup>

그러나 윤선도가 1659년 1차 예송으로 귀양을 가게 됨으로써 서원복립운동도 주춤해졌다가 1674년(현종 15) 2차 예송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1677년(숙종 3) 허목과 권대운 등의 제청으로 다시 복설되고 이듬해 ‘자산서원’이라 賜額을 받았다. 그러나 1680년 경신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2차 훼철을 당하였으며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게 되자 2차 복설되었다. 그리고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1702년 3차로 훼철 당하였다.<sup>103)</sup> 남인의 정치적 부침과 함께 자산서원의 훼철과 복설도 궤를 같이 했던 것이다.<sup>104)</sup>

---

100) 영남사림인 조학신은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있던 1783년 30량을 기부하여 전답을 매입케 하였으며 손상룡 역시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있던 1784년 30량을 기부하여 전답을 매입케 하였다.(김문택, 앞의 글 참조)

101) 자산서원의 철폐는 반정 직후인 1624(인조 2) 김장생이 이미 주장했었는데 송준길은 이를 계승해 훼철을 관철시킨 것이다.(『효종실록』 권19, 효종 8년 9월 甲子; 권20, 효종 9년 5월 庚子 참조)

102) 『孤山遺稿』 권3上, 「國是疏」

103) 金東洙, 「16~17世紀 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특히 鄭介淸의 門人集團과 紫山書院의 置廢事件을 중심으로 하여—」, 『歷史學研究』 VII, 전남대 사학과, 1977.

104) 이후에도 자산서원은 1752년(영조 28)에 복설되었다가 1762년 훼철되고 1789년(정조 13) 복설되었다가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고 1957년 복설되는 등 총 6차례에 건립되고 5차례 훼철되었다.(李炫石, 「困齋 鄭介淸 先生의 生涯와 學問」, 『全南文化財』 창간호, 1988 참조)

## 2. 예송을 통한 교류

예송에서도 남인계 호남사림과 영남남인은 예학적 입장을 같이 하며 학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1659년(현종 즉위년) 일어난 1차 예송(기해예송)은 효종의 喪에 모친인 慈懿大妃(조대비)가 三年服을 입을 것인가 基年服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여기서 송시열은 基年說을, 윤휴는 斬衰三年說을 주장하였으나 國制에 따라 기년복을 시행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1660년 효종의 練祭(小祥)을 앞두고 허목이 齊衰三年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고 이에 대해 송준길·송시열 등이 반박하면서 복제 논쟁은 다시 불이 붙게 되었다. 이 때 윤선도도 「論禮疏」를 올려, 服制 문제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허목의 次子爲長子說을 옹호하였다. 나아가 그는 서인의 주장이 宗統과 嫡統을 분리하여 봄으로써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왕실의 禮와 사대부의 예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효종이 중통을 이었으면 적장자로 보아 자의대비가 자취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5)</sup>

윤선도의 상소는 서인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남인 권시 등이 그를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선도는 삼수로 귀양 가고 그의 상소는 불태워졌다. 그리고 자의대비의 복제는 그대로 기년복으로 결정되어 시행되었다. 유배지에 가서 윤선도는 자신의 견해를 보완하여 「禮說」 2편을 저술하였다.<sup>106)</sup>

중통·적통설 등 윤선도의 예설은 이후 남인들의 예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105) 『孤山遺稿』 권3上, 「論禮疏」

106) 『孤山遺稿』 권3上, 「禮說上」, 「禮說下」.

이영춘은 윤선도의 상소가 허목의 설에 기반하여 자신의 설을 펼친데 비해, 귀양지에서 지은 「예설」은 윤휴의 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윤선도는 「예설」에서 3년복만 주장할 뿐 斬衰三年服인지 齊衰三年服인지는 명확히 언급하고 않고 있다.(李迎春, 「第一次禮訟과 尹善道の 禮論」, 『清溪史學』 6, 1989 참조)

유배 간 윤선도를 구원하기 위해 상소를 올렸던 조경과 홍우원 등도 윤선도의 종통·적통설은 바꿀 수 없는 議論[不可易之論]이라고 옹호하였으며<sup>107)</sup> 1666년 영남 유생 유세철 등 1,000여 명이 올린 복제상소에도 그의 예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sup>108)</sup> 유세철 등이 올린 상소의 준비와 작성 과정에는 홍여하와 이현일·유원지 등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들도 참여하였다.<sup>109)</sup>

또한 그의 주장은 100여 년 후 예송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약용의 「正體傳重辨」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sup>110)</sup> 15년 뒤에 다시 일어난 2차 예송(갑인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1674년(현종 15) 효종비의 상에 역시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기년복을 입을 것인가 大功服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2차 예송에서 처음에는 기년복으로 정해졌다가 서인의 주장으로 대공설로 바뀌었다. 그러자 영남유생 도신징 등이 대공복이 長子婦의 服이 아님을 비판하고 기년복을 주장함으로써<sup>111)</sup> 결국 논의 끝에 기년설로 결정되어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sup>112)</sup>

예송은 서인세력에 반대해 남인계 호남사림(호남남인)과 영남남인 그리고 근기남인 등 남인세력 전체가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며 함께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서적·학파를 통한 교류

서적과 학파를 통한 학문·사상 교류는 『磻溪隨錄』을 둘러싼 柳馨遠과 裴尙瑜, 李玄逸, 崔興遠 등의 교류와 영향, 奇正鎮學派의 문인집단 등을 통해서

107) 『현종실록』 권4, 2년 4월 庚子; 권6, 4년 4월 丙辰

108) 『현종실록』 권12, 7년 3월 乙巳; 『현종개수실록』 권15, 7년 3월 乙巳

109) 우인수, 「木齋 洪汝河의 현실인식과 대응」, 『韓國思想史學』 43, 2013.

110) 이영춘, 「孤山 尹善道の 학문과 예론」, 『국학연구』 9, 2006.

111) 『현종실록』 권22, 15년 7월 戊辰

112) 李元澤, 「현종대의 服制論爭과 公私義理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살펴볼 수 있다.

유형원과 배상유는 같이 서울에서 출생했으나 뒤에 유형원은 부안 우반동에, 배상유는 김산 만력동에 낙향하였다. 배상유의 딸이 유형원의 며느리가 될 정도로<sup>113)</sup> 두 사람은 친하였으며 학문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sup>114)</sup>

특히 배상유는 『磻溪隨錄』에 많은 감화를 받아 숙종대 「戊午封事」라는 상소를 올려 유형원이 제시한 개혁안의 실시를 적극 건의하였으며<sup>115)</sup> 윤희에게 『반계수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sup>116)</sup> 또한 이 책의 간행과 보급을 위해 이현일에게 『반계수록』을 보내 서문과 발간을 부탁하는 등 협력을 구하였다. 그러나 갑술환국으로 인해 이현일은 서문만 쓰고 발간에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였다.<sup>117)</sup> 이현일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公(유형원)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고 늘그막에 벼슬길에 종사하느라 서울에 있으면서 公의 벗인 裴君 公瑾(배상유)과 사귀었는데 배군은 행실이 돈독한 군자였다. 그가 언제나 나와 만나면 公을 칭찬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草書로 된 公의 저술 약간 권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내가 미처 그 책을 다 읽기도 전에 동쪽 향리로 돌아왔는데 평소에 늘 마음에 잊히지 않았다. 그 후 몇 해 뒤 배군이 그 책을 淨寫하여 한 질을 만들고 상자에 넣어 서 멀리 부쳐 왔기에 내가 비로소 그 내용의 본말을 다 볼 수 있었다. 이에 책을 덮고 크게 탄식하여 말하기를, “세상에 다시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이 사람은 없으나 이 책은 있으니 그래도 혹 그 뜻한 바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구나” 하였다. 배군이 이미 책을 부쳐 보내고 이어 이 책의 서문을 써 달라고 청하기에 내가 분수상 가당치 않다고 사양하였더니 이윽고 배군이 세상을 떠나

113) 배상유의 딸은 유형원의 외아들인 柳曄와 결혼하였다. 유하는 장인의 문집인 『晚學堂集』의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114) 이형성, 「磻溪 柳馨遠의 저술 재검토와 후학의 관련 자료 고찰」, 『韓國思想과 文化』 79, 2015.

115) 『숙종실록』 권7, 4년 6월 己丑

116) 『晚學堂集』 권2, 「與尹白湖鑑」

117) 李樹健, 「朝鮮後期 嶺南學派와 ‘京南’의 提携」,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九原難起의 탄식이 더욱 간절하였다. 기사년(1689) 가을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공의 胤子 暻가 배군이 청했던 것을 다시 말하기에 “내가 어찌 이 책에 서문을 써서 세상에 전하리오. 내가 감히 이 일을 맡을 수는 없으나 이제 생각하면 배군을 다시 만날 수 없고 柳君의 청도 매우 지성스러우니 사양할 수 없구나” 하였다. 이에 그 대강의 내용을 적어 책머리에 덧붙여 후세의 이 책을 보는 이들에게 고하노라.<sup>118)</sup>

이현일은 『반계수록』의 영향을 받아 조정에서 적극적인 화폐 유통과 과거 제 개혁을 위한 選士法 시행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19)</sup>

한편 『반계수록』은 대구 출신 학자인 최흥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李象靖·朴遜慶과 함께 ‘嶺南三老’로 불리는 최흥원은 1748년(영조 24) 조재연이 『반계수록』을 가져온 것을 빌려서 읽어 보았으며<sup>120)</sup> 1752년 친지, 제자들에게 이 책을 필사하게 하였다. 1770년 영조가 경상감영에 『반계수록』을 간행하도록 하고 그 전에 도내 名儒 들에게 교정을 보도록 명하자 경상도 관찰사 李瀾 등이 최흥원에게 교정을 의뢰해 제자들과 같이 교정을 보기도 하였다.<sup>121)</sup>

최흥원은 1739년 夫仁洞洞約을 시행하였다. 이 향약은 이황의 禮安鄕立約條를 향약으로 완성시킨 金圻鄕約을 모델로 삼았는데 보통 향약과는 달리 先公庫와 恤貧庫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공고는 公田을 마련하여 여기서 나오는 소출로 향약에 참여하고 있는 동민들의 公稅(田稅)을 대납하는 것이고, 흥빈고는 토지가 없는 동민에게 경작할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선공고와 흥빈고는 유형원의 사창법에서 영향을 크게 받은 것

118) 『葛庵集』 권20, 序 「通庵柳公隨錄序」

119) 김형수, 「葛庵 李玄逸의 理學과 현실인식 -반계 유형원과의 관련 및 비교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9, 2006.

120) 조재연은 모친 咸安 趙氏와 인척 관계였는데 함안 조씨의 친외가가 유형원집안이어서 『반계수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崔彦惇, 「百弗庵 崔興遠의 夫仁洞 및 漆溪[옷골] 經營 規範 研究」,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121) 『百弗菴集』 附錄 권3, 「年譜」, 英祖 24年, 28年, 46年

으로 보는데<sup>122)</sup> 이는 선공고와 홀빈고가 설치된 시점이 최흥원이 『반계수록』을 접하게 되는 직후인 데서도 잘 드러난다.<sup>123)</sup> 이 향약 외에도 『반계수록』은 최흥원의 실천 지향의 학문과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sup>124)</sup>

17세기 중반 이후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하지 못한 호남사람이 다시 학파로 결집되는 것은 한말 기정진에 가서였다.<sup>125)</sup> 기정진학파는 16세기 호남사람의 인맥과 학맥이 다시 결집되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의 학자들도 대거 문인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蘆沙先生淵源錄』 「先生門人編」을 보면 모두 594명의 이름과 字, 號, 출생연도, 본관, 대표적인 조상,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광주(96명), 장성(79명), 능주(38명), 담양(37명), 곡성(32명), 무안(32명), 창평(27명), 고창(24명), 나주(17명), 순창(16명) 순으로, 기정진의 거주지인 장성과 그를 둘러싼 전라좌도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경상도는 산청(6명), 삼가(4명), 초계(3명), 진주(3명), 함양(3명), 하동(2명) 등 경상우도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다.<sup>126)</sup> 이들의 再傳弟子와 三傳弟子까지 합하면 문인 수는 4,000여 명에 달하여 전국적으로 다른 학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정진은 철종대부터 산림으로 지목받기도 하였다.<sup>127)</sup>

122) 鄭震英, 「百弗庵 崔興遠의 學問과 鄉約」, 『韓國의 哲學』 29, 2001.

123) 선공고는 최흥원이 친지·제자들에게 『반계수록』을 필사하도록 한 일이 있었던 다음 해인 1753년 설립되었으며, 홀빈고는 최흥원이 경상감영에서 간행되는 『반계수록』을 제자들과 교정한 직후인 같은 해 1770년 설립되었다.

124) 장윤수, 「百弗庵 崔興遠의 가문의 學風과 실천지향의 삶」, 『한국학논집』 5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5

125) 박학래, 「19세기 湖南性理學의 展開와 특징 -蘆沙 奇正鎭과 蘆沙學派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9, 2006 에서는 16세기 송순계열의 유산과 인맥, 가계가 시대를 뛰어넘어 기정진에게 연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즉 17세기 이후 중앙정계에서 멀어지고 주변부화 되는 양상에서 벗어나 19세기에 접어들어 기정진을 통해 16세기 인맥과 학맥이 다시 결집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126) 『蘆沙先生淵源錄』 「先生門人編」; 고영진, 「奇正鎭學派의 學統과 사상적 특징」, 『大東文化研究』 39, 2001.

127)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일조각, 1999, 206-216쪽.

영남지역에 기정진학파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이황학파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학파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sup>128)</sup> 다른 한편으로는 기정진과 함양의 정여창 후손들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1849년 정여창의 13세손인 정환필이 南溪書院의 重修記를 부탁하기 위해 기정진을 찾아오는데 이를 계기로 趙性家와 鄭載圭·崔璵民·李直鉉 등이 기정진의 문인이 되었다.<sup>129)</sup>

대체적으로 영남지역의 기정진의 문인으로는 단성에서는 조식과 권준의 후손, 산청에서는 민안부의 후손, 진주에서는 최기필과 조려의 후손, 삼가에서는 정옥윤의 후손, 초계에서는 강양군 이요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대체로 노론 가문 출신이었다.

영남지역의 노사학파는 그들의 학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노론 가문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조식과 정여창을 숭상하는 기풍이 강한 이곳에서 그들의 선양 활동을 통해 진주와 하동·산청·함천·의령 등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또한 활발한 강학활동을 통해 많은 再傳門人들을 배출시킴으로서 영남지역에서의 기정진학파의 토대를 만들어갔다.<sup>130)</sup>

기정진은 1866년 「丙寅疏」를 올려 최초의 위정척사의 기치를 내거는데 그 사상적 기반은 理 절대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리 절대화

---

128) 1850-1860년대 영남의 학계는 당시 주류였던 이황학과 내에서도 안동의 유치명 학파, 성주의 이진상학과, 김해의 허전학과 칠곡의 장복추학과 등 다양하게 분기되고 있었으며 영남 서부지역에서는 홍식필·송치규·송래희·기정진 등의 기호학과 계통의 문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영남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학파가 출현한 것은 숙종대 이후 영남남인의 정치적 진출이 어려워진데다 영남학파의 구심점이 되었던 이황학파가 屏湖是非 등으로 분열되고 있어서 영남의 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고, 무신란 이후 계속된 노론화 정책으로 영남남인들이 기호학통계열의 인물과 교류가 증대되고 그 중 일부가 노론으로 당색을 옮겨갔기 때문으로 보인다.(金鑑坤, 「盧沙學派의 形成과 活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131쪽 참조)

129) 金鑑坤, 「盧沙學派의 形成과 活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131-143쪽.

130) 정재규는 126명, 이직현은 52명, 최숙민은 24명의 문인을 배출하였다.(金鑑坤, 앞의 글 143-146쪽 참조)

경향은 기정진뿐만 아니라 노론과 남인 등 당색을 망라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점이 영남지역 학자들로 하여금 기정진의 문하로 들어오게 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영·호남의 학문과 사상 교류를 두 시기로 나누어 16-17세기 전반 시기는 지방관 역임과 유배, 교제와 서신 등을 중심으로, 17세기 중반 이후 시기는 서원과 예송, 서적과 학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16-17세기 전반 시기 지방관 역임을 통한 교류는 김종직과 노진, 김성일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종직은 1487년부터 1년간 전라도 관찰사 겸 전부부윤을 역임하며 호남과 인연을 맺었으며, 문인인 최부는 해남에서 유계란·윤효정·임우리 등을 가르쳐 김종직의 학문이 호남지역에 전해지는데 기여하였다. 최부계열은 16세기 중반 호남의 학맥·인맥이 송순계열과 서경덕계열로 재편될 때 서경덕계열에 속하였으며 17세기에 가서는 남인계 호남사립(호남남인)으로 이어졌다.

노진은 남원의 대표적인 사족이며 기묘명현인 안처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호남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1561년 담양부사로 2년간, 1567년 전주부윤을 3년간 역임하면서 호남의 많은 인물들과 교류하였으며 이항·노수신 등과 학문적 교류를 하기도 하였다.

김성일은 1583년부터 3년간 나주목사를 역임하며 나주 나씨 나사침 집안과 함께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 5현을 배향한 대곡서원(경현서원)을 창건하고 스승 이황의 「성학십도」와 『주자서절요』를 간행하는 등 이황 학문을 호남에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 유배를 통한 교류는 김굉필과 노수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

굉필은 무오사화 때 평안도 희천으로 유배되었다가 1500년 순천으로 이배되고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사사당하였다. 최산두와 유계린·최충성·이적·윤신·유맹권·장자강 등이 순천의 그의 적소로 가서 학문을 배웠다. 한편 김인후와 유희춘이 최산두에게 수학하고 유성춘과 유희춘이 부친인 유희춘에게 수학하였다. 따라서 김굉필의 학문은 최산두와 유계린을 거쳐 김인후·유성춘·유희춘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문인들에게 전해져 호남사림의 학맥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1547년 진도에 귀양 와 19년 동안 살면서 호남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풍성하게 한 인물이 노수신이었다. 이항의 사촌누이의 아들이었던 그는 이항·김인후·기대승 등과 인심도심논변을 벌이기도 하였다. 호남사림은 명종대에 오면 사상적으로 크게 주자성리학에 가까운 송순계열과 주자성리학에 상대적이었던 서경덕계열로 나뉘었는데 노수신은 호남에서 서경덕계열의 사상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학문과 사상 교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는 교제·서신 등을 통한 것인데 이를 통해 호남사림과 교류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현보와 이항, 박영 등이다. 이현보는 박상과 소세양 등 호남사림과 문학을 중심으로 교류한 인물이며 그의 「어부가」와 「어부단가」는 뒷 시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호남 성리학의 형성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 이항이었다. 그는 기대승과 1559년부터 1566년까지 8년간 사단 칠정논쟁을 벌여 조선 성리학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김인후·유희춘 등과도 학문적 교류를 하고 송순의 면양정시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호남사림에 대한 이항의 학문적인 영향은 박광진·문위세·윤강중 등 10여 명이 문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호남 성리학의 확산과정에서 영·호남의 학문·사상적 교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박영과 이항이다. 젊었을 때 유협 생활을 했던 이항은 뒤늦게 깨닫고 선산에 있던 박영을 찾아가 수학하였다. 평생 동안 『대학』을

중시한 박영은 자득과 체인을 강조하고 경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이항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항은 거의 평생 학문 연구와 수련에 정진해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이항계열은 뒤에 송순계열로 이어지고 호남 성리학뿐만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듯 영남과 호남의 학문·사상 교류는 16세기를 중심으로 학파와 당파를 초월해 폭넓게 이루어졌다. 또한 1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사회는 서로 다른 붕당끼리 혼인도 자유스럽게 하고 학문 교류도 활발히 하였는데 이는 성리학과 예학을 비롯한 학문·사상의 수준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서인·노론으로의 권력 집중과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영·호남의 교류도 점점 그 폭이 좁혀져갔다. 그리하여 주로 영남 남인과 남인계 호남사람(호남남인) 간에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서원과 예송, 서적·학파 등을 통한 교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서원을 매개로 한 교류는 경현서원과 미천서원, 자산서원 등의 경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성일과 나주 나씨 주도로 설립된 경현서원은 원장을 둘러싸고 서인과 북인·남인 사이에 대립이 심하여 을미옥사라는 향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각각의 세력은 별도의 서원을 건립하게 되는데 서인계 호남사람은 1659년 월정서원을, 남인계 호남사람은 1690년 미천서원을 설립하였다. 미천서원의 운영에는 영남사람도 참여하였고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자산서원은 기축옥사 때 죽은 정개청을 배향한 서원으로 1616년 설립되었는데 1657년 송준길 등의 주장으로 훼손되자 윤선도가 「국시소」를 올리는 등 남인계 호남사람들이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후 자산서원은 1674년 2차 예송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1677년 복설되었으나 다시 경신환국으로 2차 훼손을 당하는 등 총 6차례 건립되고 5차례 훼손되었다. 남인의 정치적 부침과 함께 자산서원의 훼손과 복설도 궤를 같이 했던 것이다.

예송에서도 남인계 호남사람과 영남남인은 예학적 입장을 같이 하며 학문

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1659년 효종의 상에 자의대비가 삼년복을 입을 것인가 기년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1차 예송에서 서인의 기년설에 대하여 허목과 윤희 등 남인은 삼년설을 주장하였으며 윤선도의 상소는 서인의 극심한 반달을 불러 일으켜 결국 삼수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적통·종통설 등 윤선도의 예설은 이후 남인들의 예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5년 뒤에 일어나는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예송은 서인세력에 반대해 남인계 호남사림(호남남인)과 영남남인 그리고 근기남인 등 남인세력 전체가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며 함께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적과 학파를 통한 학문·사상 교류는 『반계수록』을 둘러싼 유형원과 배상유·이현일·최홍원 등의 교류와 영향, 기정진학파의 문인집단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유형원과 배상유는 사돈이 될 정도로 친하였으며 학문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특히 배상유는 숙종대 「무오봉사」라는 상소를 올려 유형원이 제시한 개혁안의 실시를 적극 건의하고 『반계수록』의 서문을 이현일에게 부탁하는 등 간행과 보급에도 힘썼다. 이현일은 『반계수록』의 영향을 받아 조정에서 적극적인 화폐 유통과 과거제 개혁을 위한 選士法 시행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반계수록』은 대구 출신 학자인 최홍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최홍원은 『반계수록』을 빌려 읽고 필사하여 보관하였으며 경상감영에서 이 책을 간행할 때 제자들과 교정을 보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부인동동약을 시행할 때 선공고와 홀빈고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유형원의 사창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하지 못한 호남사림이 다시 학파로 결집되는 것은 한말 기정진에 가사였다. 기정진학파는 16세기 호남사림의 인맥과 학맥이 다시 결집되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의 학자들도 대거 문인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정진의 문인들을 보면 경상도는 산청·삼가·초계·진주·함양·하동 등 경상우도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으며 대체로 노론 가문 출신이었다. 영남지역에 기정진학파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이황학파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학파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정진과 함양의 정여창 후손들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영남지역의 노사학파는 그들의 학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노론 가문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조식과 정여창을 숭상하는 기풍이 강한 이곳에서 그들의 선양 활동을 통해 진주와 하동·산청·합천·의령 등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또한 활발한 강학활동을 통해 많은 再傳門人들을 배출시킴으로서 영남지역에서의 기정진학파의 토대를 만들어갔다.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영남과 호남은 조선 중기에는 사림의 시대를 열고 성리학을 심화·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후기에는 서인·노론의 권력 집중화에 반대하고 한말에는 위정척사사상을 내세우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데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는 지방관 역임과 유배, 교제와 서신, 서원과 예송, 서적과 학파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학문·사상적 또는 정치적으로 교류·제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그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 호남에서의 영남학자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영남에서의 호남학자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영남과 호남의 학자들이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어떻게 상생의 발전적 관계를 자신들의 삶과 사상에서 이루어갔는지 천착한다면 조선시대 영남과 호남의 학문·사상 교류의 실상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2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3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연산군일기』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고종실록』

『葛庵集』

『健齋集』

『景賢錄』

『景賢書院誌』

『景賢續錄』

『高峯全集』

『孤山遺稿』

『錦城邑誌』

『訥齋集』

『蘆沙先生淵源錄』

『龔巖集』

『大東野乘』

『晚學堂集』

『俛仰集』

『眉巖集』

『眉泉書院實記』

『百弗菴集』

『石川詩集』

『松堂集』

『新齋集』

『玉溪集』

『一齋集』

『佔畢齋集』  
『竹川集』  
『退溪集』  
『河西集』  
『鶴峯逸稿』  
『鶴峯集』  
『學圃集』

- 고영진, 「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 『南冥學研究』 3, 1993.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고영진,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역사적 맥락」, 『사회연구』 창간호, 2000.  
고영진, 「奇正鎭學派의 學統과 사상적 특징」, 『大東文化研究』 39, 2001.  
고영진,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退溪學과 韓國文化』 32, 2003.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해안, 2007.  
고영진, 「양반관료 유희춘의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이태진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태학사, 2009.  
고영진, 「일제 이항과 호남유학」, 『호남의 큰 학자 일제 이항 연구』, 돈사서, 2012.  
김갑동, 「전라도의 탄생과 그 의의」, 『역사학연구』 63, 2016.  
김기주, 「『漂海錄』의 저자 崔溥 연구」, 『全南史學』 19, 2002.  
金東洙, 「16~17世紀 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 -특히 鄭介淸의 門人集團과 紫山書院의 置廢事件을 중심으로 하여-」, 『歷史學研究』 VII, 전남대 사학과, 1977.  
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2007.  
金鏞坤, 「廬沙學派의 形成과 活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金盛祐, 「15세기 중·후반~16세기 道學運動의 전개와 松堂學派의 활동」, 『역사학보』 202, 2009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子의 범위」, 『韓國의 哲學』 26, 1998.

- 김형수, 「葛庵 李玄逸의 理學과 현실인식 -반계 유형원과의 관련 및 비교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9, 2006.
- 박준규, 『유배지에서 부르는 노래』, 중앙M&B, 1997.
- 박준규, 「湖南詩壇의 人物과 그 특색」,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출판부, 1999.
- 박학래, 「19세기 湖南性理學의 展開와 특징 -蘆沙 奇正鎭과 蘆沙學派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9, 2006.
- 범선규,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학지리학회지』 제38권 5호, 2003
- 신병주, 『남명학과와 화담학과 연구』, 일지사, 2000.
- 오경택, 「15~16세기 前半 全州圈 士族社會의 形成과 活動」, 『한국학논총』 36,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1.
-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일조각, 1999.
- 우인수, 「木齋 洪汝河의 현실인식과 대응」, 『韓國思想史學』 43, 2013.
- 劉明鍾, 「俛仰亭 宋純의 性理思想」 『朝鮮後期 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
- 윤인숙, 『조선 전기의 사림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 이선아, 「一齋 李恒의 학문적 위상 확립과정과 南阜書院」, 『지방사와 지방문화』 17권 2호, 2014.
- 李樹健, 「朝鮮後期 嶺南學派와 '京南'의 提携」,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 李迎春, 「第一次禮訟과 尹善道의 禮論」, 『清溪史學』 6, 1989.
- 이영춘, 「孤山 尹善道의 학문과 예론」, 『국학연구』 9, 2006.
- 李元澤, 「현종대의 服制論爭과 公私義理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 李泰鎭, 「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上·下)」, 『震檀學報』 34·35, 1972·1973.
- 이해준, 「己卯士禍와 16세기 전반의 湖南學派」, 『傳統과 現實』 2, 1991.
- 李炫石, 「困齋 鄭介淸 先生의 生涯와 學問」, 『全南文化財』 창간호, 1988.
- 李炯性, 「16세기 호남사림의 학문 교류 및 논변 고찰 -金麟厚·李恒·盧守愼과 교류한 奇大升의 학문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48, 2009.
- 이형성, 「磻溪 柳馨遠의 저술 재검토와 후학의 관련 자료 고찰」, 『韓國思想과 文化』 79, 2015.
- 장운수, 「百弗庵 崔興遠의 가문의 學風과 실천지향의 삶」, 『한국학논집』 58, 계

명대 한국학연구원, 2015.

鄭京美, 「16세기 湖南士林의 家訓 -柳希春·奇大升 家の 사례-」,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12.

鄭在薰,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南冥學研究』 3, 1993.

鄭震英, 「百弗庵 崔興遠의 學問과 鄉約」, 『韓國의 哲學』 29, 2001.

趙誠乙, 「蘇齋 盧守愼의 學問과 政治活動」, 『南冥學研究』 3, 1993.

조원래, 「16세기 초 湖南士林의 형성과 士林精神」, 『금호문화』 89-2, 1989.

趙浚來,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東洋學』 2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崔彥惇, 「百弗庵 崔興遠의 夫仁洞 및 漆溪[웃골] 經營 規範 研究」,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中, 심산, 2016.

\* 이 논문은 2014년 광주대학교 연구진흥지원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Scholastic and Intellectual Exchange between Youngnam and Honam Region in Joseon Dynasty

Koh, Young-jin

There are various scholastic and intellectual exchanges between Youngnam and Honam region in Joseon Dynasty. This study looks into scholastic and intellectual exchanges between Youngnam and Honam region focusing on the work of local official, exile, friendship and letter during the 16th century and the early 17th century. and also focusing on Seowon and Yesong(Ritual disputes), book and school after the middle 17th century.

First, I look into the exchanges of local official work by Kim Jong-jik and No Jin, Kim Seong-il. Second, I look into the exchange of exile by Kim Goeing-pil, No Soo-shin, and the exchanges of friendship and letter by Yi Hyeon-bo, Yi Hwang, Park Young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early 17th century.

In those days Neo-Confucianism developed diversely and reached highest level. This owes to vigorous scholastic and intellectual exchanges between Youngnam sarim like Kim Jong-jik, Kim Goeing-pil, Yi Hwang and Honam sarim like Kim In-hoo, Yi Hang, Ki Dae-seung, Yoo Hwi-choon.

The scholastic and intellectual exchanges between Youngnam and Honam region is made widely beyond the school and faction. Even until

the 17th century the people married opposite faction without reserve, and had vigorous scholastic exchange. This largely contributed to raise the level of learning and thoughts as Neo-Confuciansm and Yahak(Ritual thoughts).

But as the concentration of power to Seoin Noron and the conflict of factions were intensified after the middle 17th century, the width of the exchange came to be narrowed. Therefore mostly exchanges between Youngnam namin and Honam namin were made by Seowon and Yesong, book and school.

First, the exchanges through Seowon could be looked into by Kyeonghyeon seowon and Micheon seowon, Jasan seowon. Honam namin and Youngnam namin had a effect academically each other in Yesong too. In the case of book and school there were exchanges and effects of Yoo Hyeong-won and Bae Sang-yoo, Yi Hyeong-il, Choi Heung-won, and the members of Ki Jeong-jin School.

Yoo Hyeong-won had a effect with Bae Sang-yoo academically and 『Bangyesurok』 affect on Yi Hyeon-il and Choe Heung-won. Honam sarim which had no independent school was concentrated into Ki Jeong-jin School in the middle 19th century. Ki Jeong-jin School shows that personal connections and academic line of Honam sarim in the 16th century were concentrated and also scholars in Youngnam region participated in Ki Jeong-Jin School.

Like this Youngnam and Honam scholars have scholastic and intelctual, polical exchanges. They opened the period of Sarim and contributed to develop the Neo-Confucianism in the middle Joseon Dynasty. They also opposed the concentration of power of Seoin

Noron in the late Joseon and resisted the invasion of the imperialism together.

**Key Words:** Exchange between Youngnam and Honam region, Scholastic exchange, Intellectual exchange, Work of local official, Exile, Friendship and letter, Seowon, Yesong, Book and school, Honam sarim, Youngnam sarim

## [일반논문]

**임종진**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 창간호부터 제59호까지를 대상으로 -

**황만기** : 마애 권예의 삶과 낙강정

**전재동·손진원** : 鄭述의 著述·出版 活動과 武屹精舍 藏書閣의 藏書 傾向

**이재두** :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박성호** : 조선시대 시권의 미상 정보 규명과 科擧 데이터베이스의 증보

**김남석** : 시주 교체 직후 동양극장 레퍼토리 연구

**문재원** : 로컬서사 구성과 미학적 실천  
- 광주 대인시장을 중심으로

